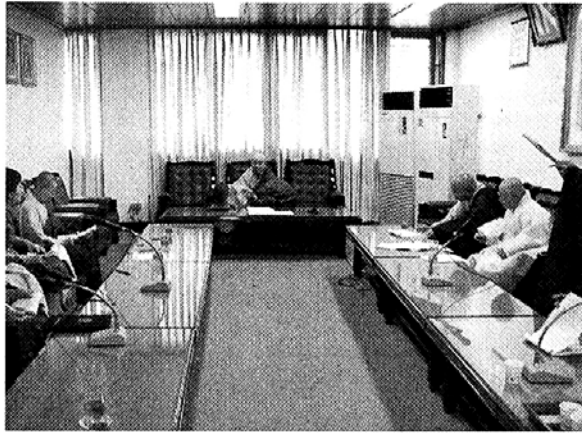


조계종 법제위원회는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의제 실무연구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실무연구회는 종진(법제위원회 위원·철우·무관(이상 제단위원장 위원)·무상(법주사 부주지)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기획·문화국장, 교육원 사무국장, 복식연구가 김경숙씨 등 12인으로 구성됐다.

# 가사 색깔 농도·재질 일률적 통일

##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18일 발족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는 1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발족한 실무연구회는 첫 회의에서 '법제에 따른 의제 구분과 시행', '승복 제작 및 유통의 관리방안 마련'이라는 두 가지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법제에 따른 의제 구분과 시행은 △종단을 상징하면서 법제를 구분할 수 있는 휘장 패용 △가사색깔 및 재질 통일 △대가사로 가사형태 통일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가사 통일화 작업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연구회 구성원들은 현재 법제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는 가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가사의 색상을 통일하는 한편, 조계종 스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휘장 마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10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가사 조수를 4급부터 대종사까지 법제에 따라 7·9·15·19·21·25조 등 여섯 가지로 통일하고, 가사 색의 농도와 재질도 일률적으로 통일키로 했다. 휘장의 경우도 법제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해 부착토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법제가 구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혼용되고 있는 반가사 및 온가사를 온가사로 통일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승복 제작 및 유통 관리방

## 4급~대종사까지 6가지로 잠정 결정 휘장모양 등 법제따라 다르게 부착

안 마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종단 차원의 관리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승복 시장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철저하고도 치밀한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종진스님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잘못 접근할 경우 오히려 승복점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 의제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의제법 개정안 마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깊이 있는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종현종법에 의제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간화선 수행자들의 사례별 분석으로 '이 정도면 어느 단계'라는 계량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화가 이뤄질 경우 간화선은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행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면 의제법 개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연구회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등 의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의제실무연구회가 가질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의제개혁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종단 직속의 '의제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의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령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실무연구회는 8월28일 2차 회의를 갖고 첫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심도 깊게 검토할 방침이다. 실무연구회의 제반사항은 법제위원회에 보고되며, 법제위원들은 이를 토대

로 의제개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결국 승가 의제 개혁은 의제실무연구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또 법제위원 등 종단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종진스님 인터뷰 4면  
한명우 기자 mwfan@buddhapa.com

# "봄·가을 스님 재교육 실시"

혜승 스님 고운사 신임 주지



겠다" ◆고운사는 다른 본사에 비해 복지·포교 등에 소극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20여년간 도량불사를 펼쳐 본사의 사격을 어느 정도 완비했다. 이제 내실을 기할 때이다. 교구내 지역(안동 영주 의성 등)이 유교문화권이다 보니 경상도지역에서도 유독 불교세가 약했다. 본말사 스님들의 대중공의를 모아 불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구내 지역포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말사주지임기를 보장해주는 등 본사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또 봄 가을로 본사차원에서 특강을 실시, 스님들의 재교육에도 힘을 쏟겠다"

조계종 16교구 의성 고운사는 16일 70명의 구성원중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 주지로 혜승 스님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19일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주지 임명장을 받은 혜승 스님은 1936년생으로 도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56년 해인사에서 정영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0년 봉선사에서 석암스님

##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본사로"

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57년 해인사 백면암에서 사미과, 65년 은해사에서 대교과를 수료했으며, 73년 조계종 중앙교육원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95년 의정부시 사암연합회 회장, 97년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사장을 거쳐 의정부시 문화원 이사, 의정부 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주지추대를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그동안 본사인 고운사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중스님들이 주지로 추대해 주니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 문중스님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자주 만나 화합과 교구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

◆스님께서는 다년간 의정부 사암연합회장을 맡으며 환경 등 불교 현안에 대한 관심 많은 분으로 알고 있다.

"97년 의정부 사암연합회 회장을 하며 북한산 관통도로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에 알리고 반대서명운동도 전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건설계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서다보니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수행환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국립공원은 꼭 보존돼야 한다. 환경훼손 되지 않는 곳은 사찰림 밖에 없다. 사찰림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허파구실을 하고 있다. 불교의 수행환경 수호는 일반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pa.com

어(禪語)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조계종의 수행 및 교학체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반증한다.

▲수행에 들어가기 전 불교 세계관(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인생과 세계를 보는 관점) 정립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행방법이 근기에 맞게 단

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화선에 대한 과학적 이해(불교 세계관 정립)와 함께 정확한 수행법 제시가 필요한 의미를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수행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간화선 수행이 현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따라 변할 필요가 있는가? 또 수행정도를 점검할

대한 분석과 검증을 통해 어느 정도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 간화선 수행자들의 사례별 분석으로 '이 정도면 어느 단계'라는 계량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체계화가 이뤄질 경우 간화선은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행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간화선단을 유일한 수행법으로 간주해 온 종단의 현실에 비추면 파격일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간화선 수행자들의 엄청난 반발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선 것은 재가자뿐만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서도 간화선 이외의 수행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제3수행법'에 대한 명쾌한 입장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의경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식은. =그동안 자주 제기돼 온 '소의경전 개선 필요하다'는 여론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실제 설문에서는 어떤 경전을 소의경전에 추가해야 하는지, 강일 전통과목에 주요 경장·울장·경장을 추가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묻고 있다.

# '조계종학' 체계 정립 시도

## 수행·교학 관련 설문 무엇을 담았나

### 간화선 등 각 수행법 재검토 '논란예상'

### 소의경전에 경장·울장 추가 문제 물어

계별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느냐? =간화선 수행방법론에 초점을 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 종호스님(동국대 석학과 교수)은 "간화선이 상근기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배양시키는 수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간화선 수행에 있어 깨달음이라는 '본질' 보다 수행자제의 '기교'로 흐르는 폐단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어떻게 입문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며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안내서'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은 현대화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까지도 자연스럽게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불교학자들은 수행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제시돼야 하며, 이는 지금까지 이뤄져 온 선지식 중심의 수행풍토에

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견해다.

▲이러바 제3수행법' 중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수행법이라면 조계종의 수행법으로 수용해도 좋은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를 수행법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조계종은 '제3수행법'을 간화선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이러바 제3수행법' 중 불교의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수행법이라면 조계종의 수행법으로 수용해도 좋은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를 수행법의 폐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조계종은 '제3수행법'을 간화선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실시간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파트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avatar.com  
세이아파트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韓國佛教 臨濟正宗 창종공고

귀의 삼보하옵니다.  
임제정종은 임제선사의 선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의 대중화 및 임제선 사상 전법을 종지로 하여 창종을 선포 합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께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6(서기 2002년) 4월

## 宗 正 覺 華

僧正院長 道安	司正副院長 智虎	全國比邱尼會長 지연	울산종무원장 청월
宗會議長 曉性	總務副院長 性巖	總務部長 혜정	경기종무원장 지연
司正院長 자연	教育副院長 禪覺	監察部長 智空	경기종무분원장 성심
總務院長 法眞	布教副院長 평담	社會部長 慧觀	전북종무원장 청담
선관위院長 만공	文化副院長 草衣	財務部長 지연	전남종무원장 청안
教育院長 금호	修禪副院長 大空	福祉部長 大德	진주종무원장 무연
布教院長 만오	弘法教育副院長 청담	사회홍보부장 견성	충북종무원장 지호
文化院長 大行	선관위副院長 토암	교무부장 도안	충남종무원장 법광
修禪院長 法光			대전종무원장 도안
弘法教育院長 鏡空			

**한국불교 임제정종 총무원**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흥은 2동 4-8 ■ 전화 : (02)395-0108